

SM, 9월 50달러 상승 가능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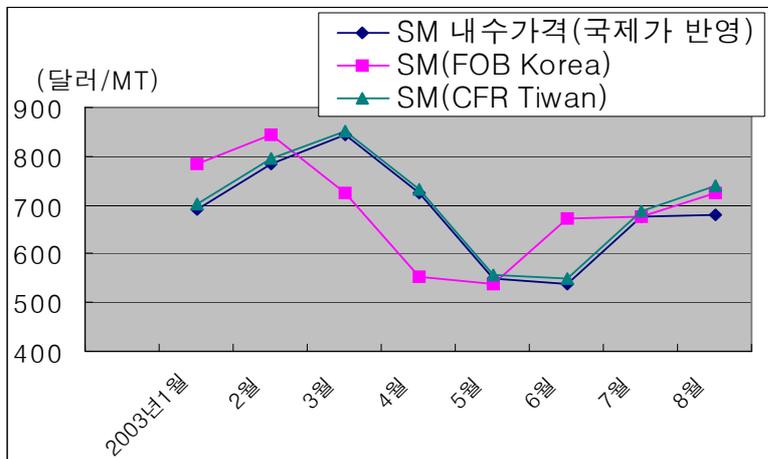
9월 톤당 725-730달러 형성 ... Benzene 트러블 여파 예상보다 커

SM(Styrene Monomer) 가격이 8월15일 FOB Korea 톤당 748달러로 상승하다 8월22일 725달러로 하락했으나 9월 내수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SM 내수가격은 8월 679-685달러보다 50달러 가량 상승한 725-73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SM 가격은 통상 원재료 Benzene 가격의 80%가 반영되는데, 최근 SM 국제가격 상승은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나 PS(Polystyrene) 영향보다는 Benzene과 Ethylene 플랜트 트러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M 가격추이(2003.1-8)



아시아 벤젠가격은 1월 CFR SE Asia 톤당 595달러에서 2월 초에는 무려 200달러 떨어진 400달러대로 하락했는데, 미국-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고 원유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이면서 원료가격이 가파른 하락세 탕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SM은 3월 중순 SM 플랜트 정기보수 및 원유가 약세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8월 첫주부터 일본 Mitsubishi Chemical의 Kashima 플랜트 정기보수와 LG화학의 9월 정기보수 계획 등으로 8월1일 FOB Korea 톤당 690-695달러로 13달러 상승했고, 8월15일에는 Tonen Petrochemicals의 Kawasaki 소재 에틸렌 크래커의 트러블과 Nippon Oil 및 Mitsui Chemicals의 정기보수 내용 조작 문제로 Ethylene, Benzene 및 SM 생산에 차질이 생겨 FOB Korea 톤당 745-750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SM 가격 산정방법은 2가지로 전월 국제가격을 반영하는 방식과 원료인 Benzene과 Ethylene 가격을 반영하는 Cost Base 산정방식이 있다.

원재료 가격에 의한 가격은 여천NCC를 통해 SM 생산기업에 통보돼 모든 생산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거래량의 30% 정도가 이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또 국제가격에 따른 가격결정은 월마다 가격이 책정되며, 전체시장의 70% 정도가 채택하고 있다. <김동민 조사연구원>